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

• 발행처 :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 발행인 : 도 성 숙 • 편집인 : 양 은 순 • 전화 (063) 223 - 5673
• FAX (063)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 careym@hanmail.net

2001 겨울호
(통권 제 4 호)

여명재가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정책발전

여명 재가 노인복지센터 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예방과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한 방안으로 대상자들에게 "몸 사랑 마음 사랑" 의료서비스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의 전북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 신고 전화 1588-9222 여명재가 전북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

2002년을 맞이하면서



도 성 숙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여명교회당회장 목사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

이스라엘사람들이 애굽의 포로 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백성을 남겨둔 채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그 백성을 맡겨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더러 애굽에서 나오라고 설득하던 사람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가 말하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전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그가 늘 대신하여 외치던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다. 다른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은 그들더러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불 속에 넣어 녹여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출32:4)”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섬길 뿐 아니라 뻔뻔스러운 죄를 짓고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었고 아주 배은망덕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순종의 이야기요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섬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짓된 예배 발견과 사람은 자기의 신을 결정할 권세가 스스로 있다고 떠벌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죄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처한 끔찍한 상태를 보고 심한 비탄을 펴부었습니다.(출32:26)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지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32:31-32)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었다.

그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리라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네가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들이 행한 일에 비추어보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가지 않으려다.

나는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어 네 앞에서 너희 원수들을 제거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여행할 때에 능력을 느끼도록 역사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산 사이에 끼여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를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분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깜짝 놀랐고 슬퍼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그들은 각성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유익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치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가나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젓과 꿀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소유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해동안 ‘몸 사랑 마음 사랑’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으며, 보람 있었으며, 열심이었으나 묻고싶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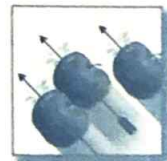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전체 지체들이 가정봉사과건센터사역과 장애인도시락배달, 몸 사랑 마음 사랑의 본래의 본질에 얼마나 접촉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으며,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까?

2002년을 맞이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복지에 본래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백성처럼 “본질에 접촉하지 못한다면 이 사역에 더 이상 발을 올려놓지 말게 하소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료서비스

“몸 사랑 마음사랑”을 해오며



주 미 애 / 의료서비스팀장

“몸 사랑 마음사랑”이라는 배에 몸을 실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실어야만 기쁘고 행복해지는 몸 사랑 마음사랑!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야 했고 들어야 했고 느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나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비전을 가질만한 흥미를 유발시키지도 못했다. 그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 한사람에 불과했다.

일을 통한 성과를 중요시했기에 내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을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버려지고 소외당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무익한 헛수고며, 인생을 허비하는 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버렸고 그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병들고 가난하여 삶에 지친 그들에겐 잠시라도 곁에 머물러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외로움을 만져주고 한숨 소리 대신 푸념이라도 들어 줄 수 있는 벗이 그리운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분들은 변하고 있다. 그분들을 향한 조그만 관심이 그분들 안에 쌓여있던 엄청난 사랑을 쏟아놓게 했고, 그 사랑이 그들의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성능 좋은 다양한 치료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족할만한 방문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은 너무 적었고 한계가 분명했다.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만남 그 자체를 기뻐했다.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를 인지할 때 그분들은 행복해 했다.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주니 고마워서 어찌나!” 하는 그들의 음성이 오늘도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도 내 부모에게는 불효자식인데! 그러나 이일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음에 감사한다.

이제는 주변이 돌아다 보인다. 작고 초라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는가!

의료서비스 '몸 사랑 마음 사랑'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전문자원봉사자(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몸 사랑 마음 사랑'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는 전직간호사 주미애 팀장을 비롯해서 현직 예수병원 간호사 김성희, 박지숙, 백미라, 정순영, 문지연, 백경미 간호사 등이다.

이들은 주 1회씩 어르신들을 방문하여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 지속적 관리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르신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위로를 주고 있다.



주미애 간호사
의료서비스팀장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김성희 간호사



박지숙 간호사



백미라 간호사



정순영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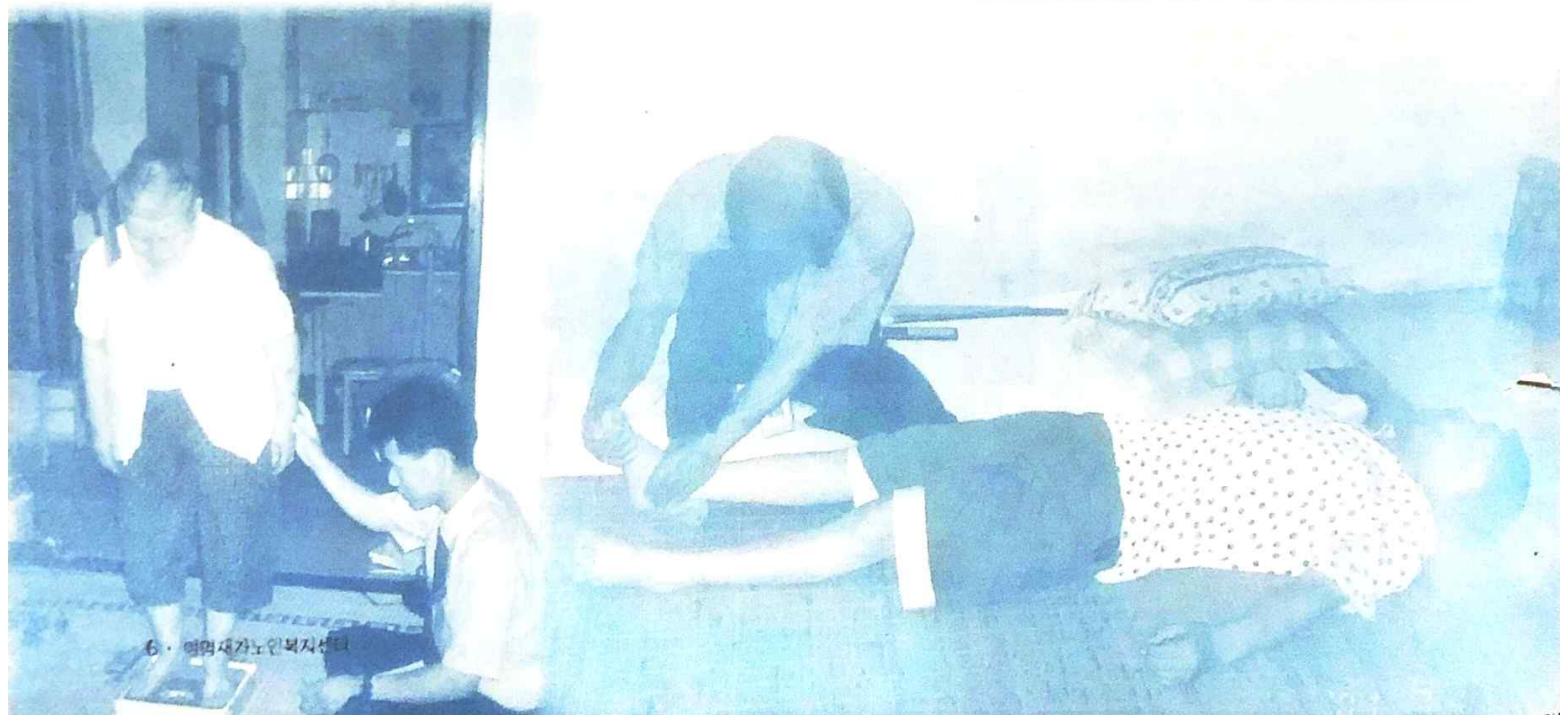


문지연 간호사



백경미 간호사

의료서비스 활동



의료 활동 CASE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의 몇가지 사례

이름	발견일자	증상및병력	조치	호전상황	치료및계획	이름	발견일자	증상및병력	조치	호전상황	치료및계획
임○희	2/28	좌, 우 측 혈압차이 9년 전얼굴마비 한방치료	어지러움증 호소 Brain MRI촬영 권유	경제적이유로 촬영못함. 현재 한방치료	계속한방치료, 침, 약물 뇌졸중예방	강○순	2/6	본센터 작년 혈압발견약 복용	220/140 지속적 복용을 안하고 있음	지속적인 고혈압관리 138/80, 140/80, 140/80으로 안정상태였으나 현재 몇주정도 180/90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식이요법 관리 및 운동요함
김○례	2000/3월	본센터에서 혈압 발견 220/140	2000년 4월 전주병원에서 고혈압진단, 치료중	지속적인 혈압 관리로 안정 상태 140/80	지속적 혈압관리	임 ○	2/8	고혈압거동불편약복용못함 와상상태 140/90, 180/120, 180/120	방문시 영양 제공, 의료기관 연계	혈압약제 공급, 혈압안정적 조절, 기력회복, 건강상태 양호해짐	보호자의 역할 소홀, 지속적인 건강 관리 약물 섭취 여부 확인
정○림	2/6	98당뇨진단 치료, 본센터 저혈당증세 발견	매주 당뇨 측정, 저혈당 증예방 식사, 운동교육	몸에사탕및 단것소지할것 권유 FBS: 40, 129, 88, 81, 91, 70	합 병 증 예방, 당뇨약,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CHECK	이○순	2/6	고혈압발견 거동불편	병원방문 못함, 혈압약 제공	의료기관 연계 (다사랑의원) 혈압안정적 조절	독거 생활, 관리가 더욱 요청
김○순	2/1	청각장애자, 지적능력저하, 혈압발견 200/120	차를타면 팔란, 차량탑승못함. 의료기관 연계, (송하숙내과)	200/120, 210/120 혈압약제공. 약 복용 후 140/90, 120/80, 150/100 등 조절 양호	계속적 고혈압관리 정확 한약물섭취 확인	소○순	3/14	얼굴이 일그러지고 귀파람을 불수없고 눈물이 흐름 190/120 당뇨발견	동공Size 우 2mm 좌 3mm 안면신경마비 의심 Brain MRI 권유	전 주 병 원 Brain MRI 예수병원의 사지시, 한방 치료, 거의 완쾌, 보존적요법 당뇨고혈압약물복용	지속적인 당뇨, 고혈압 보존적 치료 마비된 안면신경의 마사지 및 약물치료 지속
박○수	2/2	작년 본센터 불규칙적 혈압발견, 약복용안함	고혈압정확한 지식 전달 의료기관 방문 권유	약물복용 결과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호전, 혈압 잘 조절됨	지속적인 고혈압의 보존적 치료와 약물치료 확인	오○녀	2/14	10개 발가락에 발톱 무좀 발생	무좀 교육, 약물치료 주 1회, 두꺼워진 발톱 자름, 치료	발이 청결하게 유지, 새 발톱이 자라남	6개월 정도 면치료가 가능
김○	2/6	어지러움증, 시야흐림, 오른쪽 팔다리 통증 호소	뇌혈액순환 부전증에 대한 교육, 수시로 혈압, 약물섭취 CHECK		뇌졸중 예방을 위해 질병에 대해 인지시켜 주며 지속적인 약물섭취 및 건강관리	유○니	2/6	1990년 녹내장으로 실명, 삶의 무의미와 의욕 상실, 죽음을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	주 1회 방문하여 다리 마사지, 부황, 말벗, 가사 지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뀌어 감	지속적인 방문으로 정서적 위로와 말벗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함

“몸사랑 마음사랑” 자원봉사수기



오 동 철 / 자원봉사자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을 많이 느끼게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함께 해줄 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하물며 노년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몸사랑 마음사랑’ 방문간호를 같이 하면서 치료자와 위로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함께 나누며 위로 받고 힘을 얻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감사한다. 어느 정도 거리와 조금은 벽을 두고 이루어진 만남은 관심과 성실과 사랑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이제는 정말 친혈육처럼 대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놀라움을 보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움직임 속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나갔던 때도 그런 모습에 연연치 않으시고 그저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반기시고 기다리시는 그분들의 모습에 부끄럽고 감사하기도 했다.

심리적인 위로와 치료가 신체적인 치료를 더 효과 있게 함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내 부모를 대하듯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한번은 물품만 전달하는 날이 있었다. 그 날에 한 대상자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교통사고로 못 움직이시고 누워만 계시는 분이셨다. “오늘은 바쁘고 갈곳이 많으니까”라는 핑계 속에 물품만 놓고 빨리 나와야지 하고 인사하고 나올려고 하는데 앗! 급하게 나를 부르시는데 대변을 보시고 그대로 계신 상태였다. 순간 으악! 하필 내가 왔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어쩔 수없이 대변을 치워드리고 닦아드리고 냄새를 참으며 정리하고 나왔다. 나의 속마음도 모르고 연신 고마워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죄송했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다시한번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한다는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다.

요즘은 길거리에 눈에 띄는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다. 왜 가다말고 길가에서 나무를 혹은 벽을 잡고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지 이제는 마음 시리게 느낀다. 그분들의 그 고통을, 아픔을 다 느끼고 알 수는 없지만 방문간호를 통해 어르신들을 만나며 관계하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좀 더 자랄 수 있었고 더욱 봉사활동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새삼 느끼며 나의 작은 손길 하나의 움직임에도 큰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보며 주어진 이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본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전주시 21개동의 42명의 장애인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가지 반찬에 주1회의 국, 그리고 가끔은 별식을 드리고 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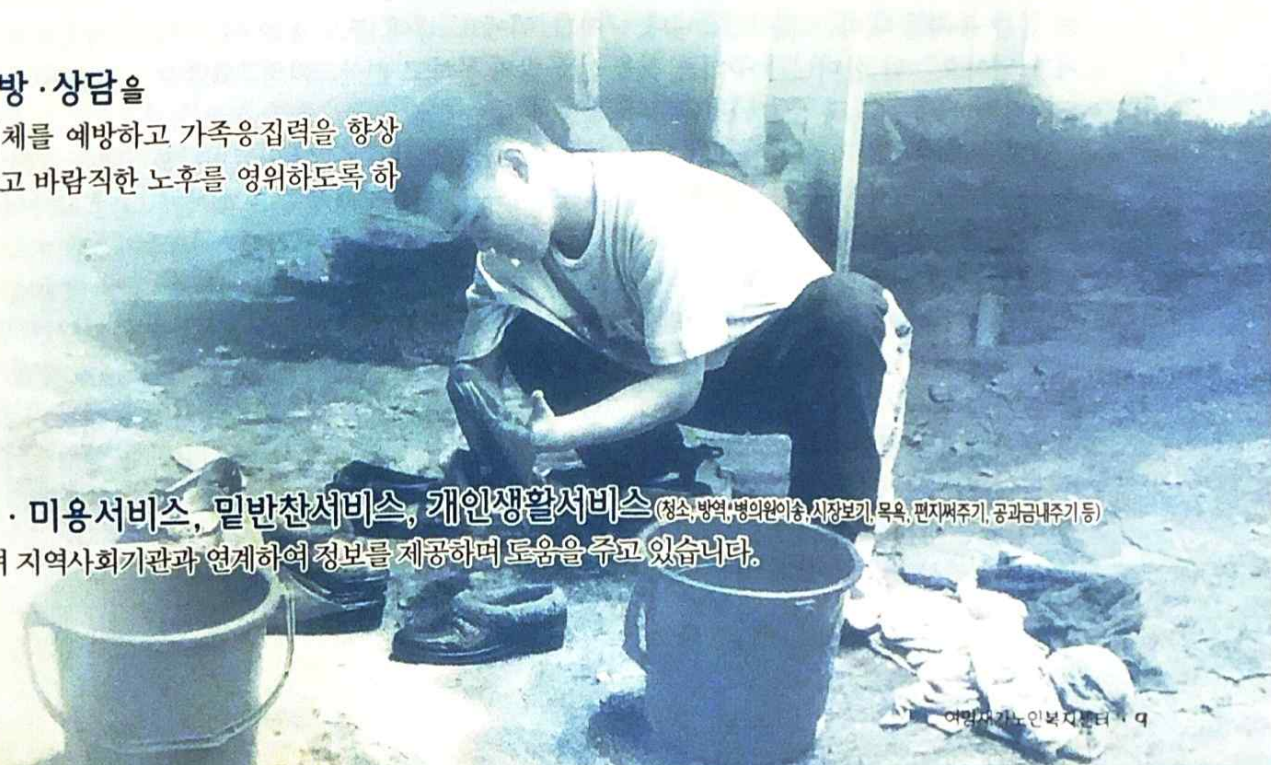


의료서비스는

전문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몸 사랑 마음사
랑' 의료팀에서 매주 1회 방문하여서 혈압을 체크
하고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여 중풍등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있으며 물리치료, 부항, 저
주파치료, 적외선 치료, 뜸, 욕창치료 등과 노인운
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으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상담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
시켜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주택보수, 이·미용서비스, 일반찬서비스, 개인생활서비스 (정소, 방역, 병의원이송, 시장보기, 목욕, 편지짜주기, 공과금내주기 등)
를 해주고 있으며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시락 차량봉사수기



이병재 / 자원봉사자

어느 날 부업거리를 찾는다며 전주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란 생활정보지는 다 펼쳐놓고 보던 아내가 “여보, 당신 좋은 일 안 해볼래” 하고 물었습니다. 애들 크기 전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눈을 부릅뜨던 아내였기에 나는 속으로 이게 웬...하면서도 겉으론 “뭔데. 좋은 일이 도대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응,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하는데 아마 운전을 해주는 일인가 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중풍으로 10여 년을 누워 계실 때 내 아내는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수발을 들었던 삶이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픈 어르신을 보면 더욱 그냥 지나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정보지에 실린 대로 전주에 있는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중순쯤이었을 것입니다. 웬지 서먹서먹한 기분으로 첫 배달을 나가던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첫걸음이었습니 다. 긴장해 “실수나 하지 않을까,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하며 장한나집사님을 뒤 따라다니며 길 외우느라 정신 없이 첫날을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제법 혼자서도 대상자 집을 잘 찾아다닙니다.

그 동안 느낀 것은 저보다 더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신 숨은 여러 봉사자 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려던 8월 하순경으로 기억됩니다. 금암동코스에서 앞을 못 보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갔을 때입니다.

언제나 들릴 때면 “아이고 고마워서..” 하며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시는 할머니가 그 날에는 인사말과 함께 검은 봉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포도예요, 한 송이 밖에 안되지만 집에 가져가 먹어요” 난 할머니가 주시는 것을 선뜻 받지 못하고 손사래치며 “고맙지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갑자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할머니의 호의를 거절했을까, 내가 간 뒤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무슨 의도가 아니고 자식 같은 이에게 그냥 고마워서 준 포도 한 송이를 거절하다니...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에만 너무 집착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두고 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도시락도 귀하지만 할머니사랑이 담긴 포도가 더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 도시락배달이라면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하고 반찬준비하고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 분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그분들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드리는 천사 같은 분들.

이분들을 만나게 돼 너무 기쁩니다.

도시락 봉사 기회를 갖게 해준 여명복지센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바라보며



양인순 / 자원봉사자

“아휴, 춥다. 수돗물이 퐁퐁 얼었어요. 부엌에서 생선 손질 좀 하면 안될까요?” 하고 물으며 들어오는 재가직원의 얼굴도 얼었다. 생선을 손질하려고 수돗물을 녹이다 녹지 않으니까 부탁하러 들어온 것이다.

재가 어르신들을 모시며 봉사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지켜본지가 벌써 삼 년이 다되어간다. 생선 후원이 들어 왔을 때 생선을 손질하고 봉투에 하나하나 싸서 어르신들께 드릴 양들을 정성껏 담아서 싸고 음식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그릇그릇에 담아 차량으로 뛰는 직원은 먼 코스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섬겼고 차량이 없는 직원은 가까운 코스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서로 협력하면서 섬기는 손길이 보기에 가슴 뿌듯하며 무엇인가 내 안에서 흥겨운 흥얼거림이 솟는다.

늘 힘쓰며 애쓰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도 이러한 이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더욱 사랑스러우신가 보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만한 물질이 없어 고민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 마음을 움직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재가 어르신 초청잔치가 세 번째 지나갔다. 세 번의 초청잔치를 보면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발로 뛰고 힘쓰며 애써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두 번째 초청잔치를 치르면서 돼지를 보내는 손길이 있어 몇 마리씩 직원들이 그 돼지를 손질했다. 돼지를 손질하는 날은 다른 날보다도 유난히 추웠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직원들의 노고는 더 많았다. 그러나 누구하나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더구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단지 얼굴에 흡족한 웃음꽃이 필뿐이었다. 날마다 뛰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발길이 참으로 바쁘다.

아침부터 어르신들에게 줄 물품들을 정리하는 손길은 바빠지고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간다. 시간시간 짬을 내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후원물품을 위해 뛰는 이들의 모습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열심임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재가직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입혀지길 기도한다.

한 해를 넘기며



이지영
사회복지사

2001년의 마지막달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의 기뻐던 일, 힘겨웠던 일, 아쉬웠던 일 등이 스칠 때면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부대끼며 섬긴지도 벌써 이년이 훌쩍 넘었다.

센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노인복지에 생각해 본적이 거의 없다. 학과 공부 중에도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은 접할 기회도 비교적 많이 있었지만 노인은 일상생활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적었다.

솔직히 사회복지에 공부한 학생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희망과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성급한 판단이 더욱 넓은 마인드를 가지는데 장애가 된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혼자된 설움이 참도 다양하다.

자녀를 낳지 못한 어르신, 자녀도 이웃도 외면한 어르신, 건강이 좋지 못해 혼자되신 어르신, 한 이 가득한 삶의 과정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이 밀려오기도 한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매일 전화를 드릴 때면 목소리는 적당한가 무엇을 점검해 드려야 하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우애, 가사, 개인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들을 파견할 때도 어르신들의 생활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어르신들의 필요와 상황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새 함께 울고 웃는 한 가족처럼 되었다. 어르신들은 매주 한번 드리는 짧은 전화에도 크게 감사하고 반가워하신다. 때론 작 은일에도 서운해하시고 마음에 오래 담아두시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셔도 우리는 좋다.

그 동안 억눌리고 참아왔던 감정들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표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다리가 되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처음 우리 센터와 만났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지셨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의 정체성과 소중함을 알아가며 즐거워하신다.

얼마 있으면 성탄이다. 정말 말구유 같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마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열심을 내어 힘차게 달린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 및 동정

- 7월** 6일 한마음자원봉사자축제에서 윤미레님이 우수자원봉사자 상을 시상했습니다.
9일부터 한일장신대학교2명과 원광대학교2명의 학생이 본 센터에서 28일까지 실습을 마쳤습니다.
13일에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기관장 및 실무자회의에 노인숙총무가 참석했습니다.
19일날 한일장신대 김형길교수와 원광대 서운교수 그리고 전주대 김수경교수님이 본 센터에 실습생지도 및 기관방문을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20일에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2년 지원사업프로그램으로 의료서비스 '몸사랑 마음사랑' 을 연장신청 했습니다.
27일날 본 센터 3호 소식지가 발간 되었습니다.
- 8월** 11일에 단체자원봉사팀 새벽이슬이 3분의 대상자에게 가사지원과 개인활동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 9월** 1일중화산사무소연계로 기재성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4일전주시 놀이방협회에서 후원금30,000원과 포도1상자씩 노학주,박귀용,유옥니어르신께 전달했습니다.
5일 공동모금회주관 사랑의 집고치기에 7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5일 지역복지대상자로 권춘만씨가 선정되었습니다.
17일 전북제일신문에 '몸사랑 마음사랑' 의료서비스가 보도되었습니다.
21일 까리따스 방배복지관주관 노인학대예방상담세미나에 노인숙총무가 참석했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에게 추석물품을 전달했습니다.
25일에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자원봉사관리자 고급아카데미과정을 양은순간사가 수료했습니다.
28일에는 대상자 및 장애인들에게 밀반찬 및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 10월** 6일에 제3회여명재가어르신사랑의축제 개최 및 후원자음식물전달이 있었습니다.
15일에는 치매가족회 주최 치매시민강좌에 차상미간사가 참석했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불런티어21 주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양은순간사가 수료했습니다.
26일에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이웃돕기성금배분지원사업추진요령설명회에 노인숙총무가 참석했습니다.
- 11월** 19일날 동아인재대학 익산캠퍼스 선교복지학과학생 45명이 본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22일에는 양유순,남궁걸,이금자,박미선,강원봉후원자님의 직장을 방문하여 정성들여 만든 음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도성숙대표이사께서 장애인도시락대상자를 방문하셨습니다.
23일에는 전주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주최 재가복지시설월동대책회의에 노인숙총무가 참석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주최 제11차복지세미나에 노인숙총무가 참석했습니다.

12월 8일에 전주시 자원봉사과지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원봉사최고관리자과정을 양은순간사가 수료했습니다.

16일에는 자원봉사자보수교육을 7명이 받았습니다. 같은날 한국재가복지협회노인학대예방세미나에 이지영간사가 참석했습니다.

27일에는 몸사랑마음사랑 의료서비스평가회를 했습니다.

28일에는 2001년 해님이 자원봉사자의 밤을 가졌습니다.

삼천동,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자원봉사가족

♥정기적자원봉사자

백미라, 최명순, 김현아, 조윤주, 노승주, 유근례, 안경숙, 양유순, 최연희, 송재오, 김주희, 조철환, 임숙현, 김옥자, 새벽이슬

♥정기적의료봉사자

주미애, 박지숙, 오동철, 김성희, 문지언, 백미라, 백경미, 김요셉

♥도시락준비 및 배달봉사자

김옥자, 양인순, 윤미래, 김현아, 임은희, 최영순, 최명순, 양은인, 이소영, 이병재, 양기순, 송진화, 한경준, 여경훈, 효자4동파출소, 박용수, 우영동, 우혁, 김요셉, 박래승, 양효남, 김정숙, 최 현, 노승주, 이수영, 장한나, 양유순, 오동철, 박상일, 황규환, 오규상, 조계석, 도성숙, 진성택, 최은선

♥비정기자원봉사자

천홍지, 김길순, 정영란, 이미경, 정숙희, 김화영, 박지숙, 이영주, 문세권, 김웅기, 고경효, 서기성,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의 후원가족

기관후원

여명교회

정기후원가족

해성식품, 승현상사, 미카엘문구, 이마트(구태서), 전주마트제과, 전일수산, 손인섭, 봉유통강인농장, 전중세, 김종락, 삼천농수산물시장, 송천농수산물시장, 효자식품, 여산식품, 송순모한빛농산, 빵굽는정든마을, 하림전주대리점, 송선냉동, 해동식품, , 가족식품, 노인숙, 남궁걸, 마복임, 박은경, 이세라, 이복영, 고찬배, 박미선, 이금자, 서영석, 김창주, 강원봉, 여명교회제2청년부, 송정용, 임현주, 전춘자, 김정자, 배승진, 조정란, 이정우, 고희석, 양은실, 이석봉, 소점례, 지은정, 유미, 신순미, 김정숙, 유정자, 김현숙, 권순복, 이선, 염효순, 최봉남, 이석길, 김남희, 이점례, 이점순, 형남만, 소효례, 장영자, 나효옥, 조옥선, 김정수, 박노진, 김현석, 한인구, 이석연, 이재룡, 이수영, 김영란, 진오범, 김진산, 송종덕, 임승균, 최복임, 이형기, 이선자, 모기성, 강창일, 최정애

일시후원가족

소라왕만두, 마이산김치공장, 명진종합식품, 샬롬재가노인복지센터, 푸드뱅크, 덕진재가노인복지센터, 동아인제대학방문단, 김기원, 장영달, 이미경, 오동철, 김혜숙, 김완자, 신점녀, 전봉순, 오점녀, 오은순, 조점녀, 아코디언협회, 인보종합사회복지관

10월 6일 사랑의 축제 행사후원가족

오복떡집, 원조떡집, 낙원떡집, 동부떡집, 하나로떡집, 민속떡방앗간, 삼남양금, 파파이스, 꼬랑꼬치양념통닭, 상록수화훼직판장, 롯데칠성서부대리점, 전주종합상사, 서도뷔페, 네오이벤트, CM디자인그룹, 사립문고협의회, 효자1,2,3,4동사무소, 호성동사무소, 호성동교회,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가나안신협, 풍년그릇마트, 사단법인대한프로사진가협회전북지부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치량봉사자, 전문간호사 간병, 목욕서비스, 재활보조, 병원동행, 청소, 식사차려주기, 세탁, 말 벗 해주기 등 혼자서는 외로운 노인,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분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금후원 -현물후원(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예금주 :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